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12월 · 2024년 1월 제 **13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새해부터 암 검사와 치아 스케일링도 해드립니다”

공단 검진보다 10여개 항목 더 많은 건강진단 실시



새해에 새로 시작하는 건강검진은 먼저 목요일 식사 나눔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실시하고,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방문 건강검진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해를 맞아 본원에서는 환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본원에서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목요일 식사나눔과 음악치료교실, 영화 상영, 목욕서비스, 이발 봉사, 법률 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중 목욕서비스는 2022년 6월부터, 목요일 식사나눔을 대체한 도시락 나눔은 2022년 8월부터 그리고 음악치료교실과 영화 상영은 그 해 11월부터 재개돼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 제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11월 23일부터는 도시락 나눔 대신 목요일 식사나눔을 다시 시작해 식당을 찾은 이들에게도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새해에는 목요일 식사나눔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외에, 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방문 건강 검진과 의사 왕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복약지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쪽방촌에 혼자 사는 고령자나 환자들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어온 약을 쌓아놓고 먹지 않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이중 처방받아 중복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 많은 이가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해 본원 약사가 직접 방문해 약 복용법을 지도할 예정이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병원이라는 이점을 살려 식사하러 오는 분들이 예약을 통해 요셉의원에서 건강 검

131호
주요
소식



새해 건강검진 확대

1



이사장 신년사

2



병원 소식

5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7



국성회 소식

20



이사장 신년사



요셉의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셉의원 가족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친교, 선교, 참여의 기적들이 요셉의원에서 계속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요셉의원 후원회 가족들과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가족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요셉의원을 찾아오시는 모든 형제자매와 직원, 봉사자, 후원자를 비롯한 요셉의원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빕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한 해도 요셉의원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인들의 나눔과 희생을 현세와 내세에서 백배로 갚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소집하신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 “시노드 교회를 위하여: 친교, 선교, 참여”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의 새해 사목교서 주제이기도 합니다. 대주교님은 ‘시노드 교회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마침 요셉의원은 시노드 교회의 좋은 모범입니다. 요셉의원의 모습 속에 시노드 교회의 세 가지 핵심이 조화롭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시노드가 강조하는 ‘친교’는 하느님 안에서의 친교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이웃과의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요셉의원에서는 기적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희망을 되찾습니다. 어떤 분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고, 또 어떤 분은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해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친교와 나눔이 곧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요셉의원의 존재가 더욱 빛이 난다고 믿습니다. 요셉의원을 통한 사랑의 봉사는 곧 그분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시노드의 두 번째 주제가 ‘선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요셉의원을 통한 사랑의 나눔이 곧 우리의 신앙고백이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찾아오시는 모든 분이 존중받고 소중하게 모셔집니다. 그분들이 곧 우리를 찾



12월 21일 본원 1층 식당의 목요 식사 나눔 모습.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101명이 참석해 허기를 채웠다.

진과 구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교구 내 여러 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해 입소자에 대한 건강 검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요식사나눔 참여자 대상 건강 검진 예약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사이에 실시하는 식사나눔에는 한 번에 100~130명 정도의 인원이 찾아와 식사를 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본원 환자로 등록돼 필요할 때마다 진료를 받는 이도 있으나, 본원에서의 거리와 관계 없이 아파도 병원을 잘 찾지 않는 이들이 있다.

본원 목요나눔에서 만난 의료 수급자 I씨(65)는 “나이가 들면서 이곳 저곳 아프지만, 웬만하면 귀찮아서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며, “그러다 보니 몸이 더 고장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쪽방촌에 사는 고령자들도 많은 이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지니고 산다. 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정작 손을 써야 할 증상이 나타나도 그냥 지나치기가 심상이다.

혼자 쪽방에 사는 Y씨(73)는 성격이 내성적으로 바깥 출



아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요셉의원에서 삶의 시름을 잠시라도 내려놓고 기쁘고 흡족한 시간을 누리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위로를 요셉의원을 통해서 마음껏 맛보고 가시도록 말입니다. 요셉의원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또 하나의 현장교회입니다.

시노드의 마지막 주제는 '참여'입니다. 요셉의원에는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한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성직자나 수도자 혹은 평신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뿐입니다. 치료 봉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치료를 받는 형제자매나 똑같이 시노드 교회의 길을 함께 걷는 형제자매입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 사랑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타종교인이나 신앙이 없는 분까지도 요셉의원의 길을 함께 걷는 주인공들이십니다.

요셉의원 가족여러분!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친교, 선교, 참여의 기적들이 요셉의원에서 계속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필리핀요셉의원 후원회 가족들과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가족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나눔재단법인 이사장 주교 **유 경 춘**



본원 방문 간호팀이 쪽방 주민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입을 거의 안 하는 편. 지난 12월 초순 본원 방문 간호팀이 찾아가 혈압과 혈당을 재보니 표준치를 크게 웃돌아 본원으로 데려가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혈당과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 심해진 것으로 판명돼 현재 정기적으로 내원하며 약 처방을 받고 있다.

본원 고영초 원장은 “쪽방촌에 살거나 노숙을 하는 분들은 건강 문제보다 먹을 것, 잘 곳 등이 더 큰 문제여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분들이 많지 않다”며, “새해부터는 이런 분들이 검진을 받아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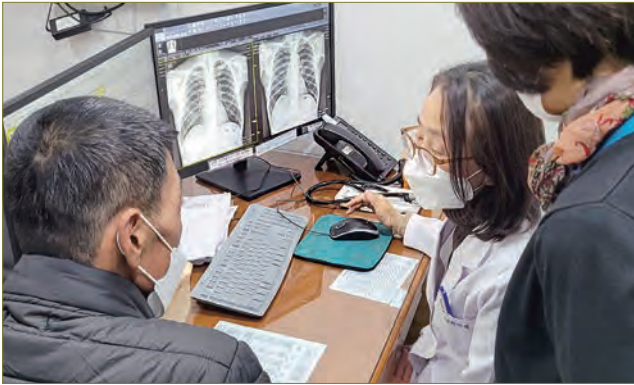
암 검사와 구강 검진 포함해 40여 항목 검사

현재 사회사업실과 의료사업실에서 협업으로 진행하게 되는 건강 검진은 본원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기초검사(소변, 혈액, X선검사 등)에다 구강 검진 그리고 종양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여성)가 포함된다(표 참조). 이 검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비해 구강검진과 종양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를 비롯해 주요 검사 10여 개 항목이 더 들어가 있다. 이 검진에서 구강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 치석이 많거나 문제가 있으면 직접 스케일링도 해줄 예정이다. 치과 스케일링은 현재 소요 인력을 구하고 있어 인원이 보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표〉 요셉의원 건강검진 종목(기초 33종목, 추가 8종목, 구강검진)

혈액검사(CBC) 8종목	갑염증(B형간염, C형간염, HIV, 매독 5종목)
혈색소(Hemoglobin)	B형 간염 검사
Hematocrit	C형 간염 검사
백혈구(WBC)	HIV Ab
적혈구(RBC)	매독 검사
혈소판(Platelet)	소변검사(7종목)
MCV	pH
MCH	요당
MCHC	요단백
당뇨,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통풍(14종목)	RBC(적혈구, 노침사)
혈당검사(Glucose)	WBC(백혈구, 노침사)
당화혈색소(HbA1c)	상피세포(노침사)
Total Bilirubin	세균, 결정체 등(노침사)
Albumin	암표지자 검사(5종목)
AST(GOT)	AFP
ALT(GPT)	CEA
ALP	PSA(남자)
BUN	CA19-9
Creatinine	CA125(여자)
총 콜레스테롤	갑상선 검사(3종목) - 여자
HDL 콜레스테롤	T3
LDL 콜레스테롤	TSH
중성지방	Free T4
요산	구강 검진(치과)
	필요시 스케일링 통해 치석 제거



본원에 등록된 환자들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X선 촬영 등 기초검사를 실시한다.

본원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의 특성상 감염질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B형간염, C형간염, HIV, 매독검사도 매번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원에 등록된 환자들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씩 기초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건강 검진은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 질병 소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찾아 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대상자로는 먼저 매주 목요일 오후 식사나눔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건강 검진과 구강 검진을 원하는 이들. 본원에서는 식사 나눔 참여자들에게 검진 안내를 적은 간단한 설명서를 나눠주고, 원하는 이들은 식사 후 상담 접수를 거쳐 당일 혹은 예약일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거동 못하는 위중한 환자는 의사가 왕진

목요 식사 나눔 이외의 평일에는 본원 방문 간호팀이 일주일에 2~4회 실시하는 쪽방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강 검진이 필요하거나 검진을 원하는 이들에게 본원에 와서 검진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간호팀은 혈압이나 혈당 체크 이외에 대상자가 약이나 식사는 제 때 잘 하는지, 걱정거리는 없는지,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지 등을 살펴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방문 간호팀의 한진희 간호사는 “방문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며, “다른 병원에서 약을 장기 처방 받아 복용하더라도 가까운 우리 병원에서 정기적인 체크와 함께 건강검진을 해보시라고 권한다”고 설명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상태를 파악한다. 쪽방 환자 박모 씨(73)는 깡마른 몸에 거동이 불편해 목발을 짚고 다닌다. 지난 추석 무렵 식사를 못하고

감기로 기침과 고열에 시달린다는 방문팀의 보고를 받고 본원 고영초 원장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당시 급히 치료할 질환은 발견되지 않아 영양보조제와 약 처방을 받으면서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 얼마 뒤 타박상으로 오른손가락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방문팀은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와 X선 검사를 실시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약물 처방을 통한 치료에 들어갔다. 박 씨는 2주 정도 약을 복용하고 손가락 움직임이 자유로워진데다 통증도 잦아들었다며 고마워했다.

고영초 원장은 “거동을 못하는 환자가 위중한 상태를 보일 때는 상근 의사인 저나 다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왕진을 가서 상태를 보고 큰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전원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본원 방문 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쪽방 주민을 방문해 혈압을 재고 있다.

“여러분을 위한 병원, 편안히 이용하세요”

새해 들어서는 원내에서도 환자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은 많은 이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위축돼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기 쉽고, 때에 따라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기도 한다. 의료사업실 직원들은 “우리 병원은 문턱이 높지 않고 항상 열려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데 동의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병원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시라는 마음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원 직원과 봉사자들은 실제 이런 취지로 내원 환자에게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호칭도 ‘선생님’으로 부른다. 흥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환자들과 낮이 익다 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레 평어를 쓰거나 반말 비슷하게 하며 친근감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환자 각자는 자신의 경험과 느끼는 감정의 정도가 다르므로 반드시 존칭을 써야 하고, 행동에서도 그런 마음이 배어나오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목요일 식사 나눔 3년여 만에 재개

본원은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중단됐던 '목요 식사 나눔'을 3년여 만에 재개했다.

본원 사회사업실과 총무실 영양팀은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본원 1층 식당에서 노숙인과 독거 노인, 쪽방촌 주민 등 89명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후



3년 여만에 재개한 목요식사나눔에는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일손을 도왔다.

식으로 굴을 제공 했다. 대방동 성당과 양재동 성당 및 개인별로 봉사온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주방 식사 준비와 배식 봉사, 설거지 등에 힘을 모아 제 시간에 나눔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전의 목요나눔 식사 인원은 100여 명에서 많게는 150명에 달해, 앞으로 인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여 년간 봉사한 김평일 치과봉사의, 지병으로 선종

치과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소설가로도 등단

본원 개원 초부터 치과 의료진에 합류해 무료 봉사를 했던 김평일(라파엘) 치과 봉사의가 11월 16일 지병으로 선종했다. 향년 78세. 김 봉사의는 경기중고와 서울대치대를 나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김평일 치과를 운영하며, 1987년 10월 16일부터 22년 4개월여 동안 요셉의원 치과의로 봉사했다. 본원 초대원장인 선우 경식 선생과 동년배이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고인은 1998년 12월 본원 경당에서 성체성사에 대해 대림절 특강을 하기도 했다.

치과 신문에 10여 년간 논설을 게재하는 등 글쓰기를 즐겼던 고인은 2010년 월간 <한맥문학>에 '천사와 악마의 공동 고백'이라는 소설로 등단한 뒤, 2018년 한국문인협회 계간지 <한국문학인> 겨울호에 '공수래공수거가 아닙니다'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이 소설은 '경식'이라는 선우 선생의 실명을 사용해, 이승과 저승은 연결돼 있고 이승에서의 사랑 나눔이 저승에서는 보화로 쌓인

다는 신앙적 내용을 담았다. 고인은 본지 인터뷰(2019년 1월호)에서 "언젠가 선우 원장에게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유명해질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교만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 피정 때 하면서 '자신은 (교만해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해 그분의 훌륭한 면을 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2019년 2월 말 치과를 정리하고 은퇴할 예정이던 김 원장에게 은퇴 후 계획을 묻자 '이제 저 세상에 갈 준비를 해야겠다'던 그는 끝내 지병인 간암을 이기지 못 하고 선우 선생이 계신 곳으로 갔다. 고인은 2019년 1월 말 가톨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비롯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이라 생각한다"면서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



비를 해야겠다'던 그는 끝내 지병인 간암을 이기지 못 하고 선우 선생이 계신 곳으로 갔다. 고인은 2019년 1월 말 가톨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족이나 이웃을 비롯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행복'이라 생각한다"면서 "천국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선우 경식 본원 초대원장의 실명 소설이 게재된 문예지 <한국문학인>을 들고 있는 김평일 원장(사진 위). 아래는 2010년 2월 봉사를 마감하며 꽃다발을 받는 모습.



본원 1층 대기실에서 이미용 봉사 재개

본원은 11월 14일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중단했던 이미용 봉사를 재개했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1층 대기실에서 실시된 이날 이발 봉사에는 이신애 미용사와 김승찬 봉사자가 참여해 모두 다섯 명의 머리를 다듬어주었다.

이어 12월 12일 진행된 이미용 봉사에서는 오현숙(아나다시아) 미용사와 유신숙(에스텔) 봉사자가 쪽방 주민 등 11명에게 이발을 해주었다. 본원 이미용 봉사는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직원·봉사자 함께 김장 담가

본원 직원과 봉사자 20여 명이 11월 22일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본원 식당에서 다음 해에 쓸 김장 김치를 담갔다. 평소보다 세 시간 일찍 출근한 남자 직원들을 포함한 김장팀은 우리농에서 구입한 절임배추 200포기에 전날 식당 영양팀에서 미리 마련해놓은 김장 속재료를 버무려 넣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본원에 봉사 오는 봉사자들과 직원, 그리고 11월 23일부터 매주 실시하는 목요식사나눔 참석자들을 위해 예년보다 양을 늘렸다.

음악치료교실에서 소프라노 이진희 교수 공연

12월 14일 오후 본원 4층 도서관에서 열린 음악치료교실 수업에서는 10여 년 전 이 교실 강사로 봉사한 이진희 경기대 점임교수(소프라노)를 초청해 작은 공연을 펼쳤다. 이 교수는 이날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 등 원내 인사와



코로나 이전 연말이면 교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던 음악치료교실은 2023년에는 소프라노 이진희 교수 초청 공연으로 음악회를 대신했다.

쪽방촌 수강생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 나의 태양(O sole mio) ▲얼굴(신귀복 곡) ▲봄날의 햇살(민경찬 곡) 등 세 곡과 앵콜곡 ▲아름다운 나라(한태숙 곡)를 청아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해 참석자들로부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달빛의 소프라노 소프지니’라는 예명을 가진 이 교수는 참석한 쪽방촌 주민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노래해 추위에 얼어붙은 쪽방 사람들의 가슴에 따스한 열기를 더해주었다. 이 교수는 “가슴에 웅어리진 분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위안을 드리고

자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다”며,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시간을 쪼개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마추어 남성중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본원 고영초 원장(테너)은 답가로 가곡 ‘눈’(김효근 곡)을 불러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신학생 현장체험 소감

‘가난, 고통 그리고 행복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부터 6개월 간 본원에서 현장체험과 실습을 한 허근(막시밀리안 M. 콜베) 광주대교구 신학생이 12월 12일 실습을 마감하고 교구로 복귀했다. 허근 신학생은 본원에서 현관 안내와 간호팀, 쪽방방문팀 등 여러 부서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는 한편, 빈민촌 사람들의 숨겨진 애환을 경험해 보기도 했다. 본원에서 일하며 느낀 체험을 아래와 같이 적었다.



허 근(막시밀리안 M. 콜베)
광주대교구 신학생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의 끝자락에 요셉의료원에 찾아와서 어느덧 살갗에는 싸늘한 바람이 부는 겨울에 이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낙화유수처럼 흘러간 것을 보니 요셉의료원의 생활은 제게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실습 기간 함께 해주신 요셉의원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처음 신부님과 면담했을 때 지원동기에 관하여 물어보셨는데, 이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해코지당할까봐 골목을 지날 때 눈을 깔고 지나다니고, 대화는 물론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랬다면 제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처음 맡게 된 안내데스크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과 만나게 되었고, 들어오는 분이 없을 때는 안내데스크 뒤편에 걸린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보며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발, 그리고 그 위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편견으로 일렁이는 내 마음을 명경지수와 같이 고요한 마음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호구조사를 위해 쪽방들을 돌아다니며 그곳 주민들에게도 각자의 사정이 있을 뿐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예전에는 큰길로 역을 통해 돌아갔다면 이제는 고가대로 밑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분들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독서(이사 40)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느님의 길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난과 고통은 사람들을 생명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잃었지만, 길을 찾는 사람들과 길을 내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곳이 요셉의원입니다. 오늘 복음(마태 18)처럼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돌봄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곳 그곳이 요셉의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경험하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하셨습니까? 불행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가난해도 고통받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해도 고통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요셉의원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밥을 주고 치료해 주는 요셉의원의 직원과 봉사자들을 통해 가엾은 마음이 들어 먹을 것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원자분들의 나눔, 직원과 봉사자들의 희생을 통한 사랑의 기적이 이곳 요셉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기적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어서 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15지구 사제단이 보낸 김치, 쪽방촌에 나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15 영등포 - 금천 지구(지구장 송우석 대방동성당 주임신부) 사제단이 지난 11월 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라고 김장 김치 650kg을 보내왔다. 사제단은 2023년도 사제단 경비 일부를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김치를 구입해 본원에 전달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이 김치를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지난 12월 1일과 4일 이곳 쪽방촌 320가구에 나눔했다.

송우석 지구장 신부는 “날도 추운데다 물가도 크게 오르는 연말에 힘든 겨울을 보내야 하는 쪽방 주민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지구 신부님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간호사회 의류와 성금 전달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간호사회(회장 박정온 수간호사)는 12월 6일 ‘사랑 나눔 실천’의 하나로 본원에 겨울용 옷과 운동화 등 의류 네 박스와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성탄 시기와 연말을 맞아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소나마 따스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후원 물품은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 간호사회가 원내 간호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옷과 신발을 깨끗이 세탁해 모은 것이다. 박 회장은 “우리 간호사회에서는 그동안 요셉의원 간호팀에 지원 봉사를 나가다가 코로



모아놓은 의류를 가지러 간 본원 직원과 신학생이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 간호사회 회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나 사태로 중단됐다”며, “상황을 봐서 2024년부터 재개 여부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염리동 성당, 겨울용 패딩과 후원금 전달



서울 염리동 성당 황인환 (베네딕토) 주임신부와 안순 봉 사회사목분과장, 김진철 사목회 총무는 12월 6일 본원을 찾아 신자들로부터 모은 성금 200만 원과 겨울용 성인 패딩 55벌을 전달했다. 해마다 연말에 노숙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염리동 성당은 지난 11월 초부터 세 주일 동안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부 행사를 진행해

성금과 물세탁 되는 남녀 패딩 의류를 모은 뒤, 의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업체에 세탁을 의뢰했다. 황 신부는 “쓸쓸하게 한 해를 보내야 하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는 본당 신자들의 사랑을 담았다”고 말했다.

대방동 성당 빈첸시오회, 의류 650점 기증

서울 대방동 성당 빈첸시오회(회장 김현옥 세라피나)는 12월 6일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본당 신자들이 모은 의류와 신발 600점을 본원에 기증했다. 이번 후원 의류 수집을 위해 본당 측은 주보에 공지를 하고, 미사 때마다 신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빈첸시오 회원들은 매주 일요일 오전 물품을 모아 점퍼나 겹옷, 내의, 신발 등 종류별로 분류해서 정리했다. 김현옥 회장은 “본당 신자분들에게 집에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나눔을 하자는 취지로 설명해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다”고 전했다.



대방동 성당 빈첸시오회 회원들이 한 달 동안 모은 의류와 신발 등을 본원에 기증했다. 회원들이 그동안 모은 물품들을 정리하는 모습.



오영임 루시아 후원자, 온풍기도 후원

지난해 6월 본원 임상병리검사실의 주요 의료기기인 일반 혈액검사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오영임 루시아 후원자가 12월에는 1층 환자 대기실의 온풍기 교체에 쓰라고 다시 기부금을 쾌척했다. 두 장비 합해 1천만 원 가량을 후원한 오 후원자는 “3년 반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가진 것을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 기댈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요셉의료원에 기부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후원자는 이어 “신앙인으로서 제 작은 뜻이 하늘 나라에 가신 부모님께 선한 기도로 전달되고, 저 역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원자는 12월 8일 상도동 성당 부주임 신부의 주선으로 청년회 간부 다섯 명을 소개받아 함께 본원을 견학했다. 청년들은 견학 후 ‘나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남을 돕는 것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보고 그는 “요즘 청년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돼 반갑고 너무 행복했다”며 활짝 웃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과 업무 협약 체결



본원 고영초 원장과 매그너스 요양병원 손의섭 이사장은 12월 19일 보건 향상에 공동 기여하기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매그너스

요양병원은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매그너스 의료재단 산하 병원으로, 이 재단은 암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을 두고 있다. 고영초 원장은 “꼭창촌의 고령층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 받거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전원시킬 수 있는 협력 병원이 하나 늘어나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석교상사, 사랑나눔 골프대회 기부금 전달

지난 12월 13일 브리즈스톤 골프 용품 수입 총판업체인 석교상사(대표 이민기)가 제16회 사랑나눔 골프대회에서 모인 기부금 6,471만 원을 본원에 전달했다. 사랑나눔 골프대회 운영비는 주최사인 석교



상사가 전액 부담하고, 대회 참가자들이 낸 성금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이번 사랑나눔 골프대회에는 골프존, 이승엽야구 장학재단, 신한라이프 같은 단체를 비롯해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단 등 각계 각층에서 뜻있는 후원자들이 동참해 사랑의 손길을 나누었다. 본원은 이번 후원금을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 환자들을 위한 약값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경동제약, ‘바보의 나눔’ 통해 마스크 2만 장 후원

경동제약(회장 류덕희)은 순수 모금 및 배분 전문 단체인 ‘바보의 나눔’을 통해 마스크 2만 장을 본원에 전달했다.

본원은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새로운 마스크를 제공해 갈아쓰도록 하고, 쪽방 방문 서비스를 할 때도 필요한 가구에 마스크를 전달하

고 있어, 이번 후원으로 마스크 걱정 없는 넉넉한 겨울을 보내게 됐다. 경동제약은 연말이면 가난한 빈민층을 위해 기부금과 약품 전달 등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상영재단, 초음파기기와 약품 구입비 및 쌀 후원

(주)신도리코 창업주 고 우상기 · 최순영 부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 상영재단(이사장 정혜선)이 올해에는 본원에 특별후원금 8,200만 원을 기탁해 낡은 초음파 기기를 교체하고 약품 구입에도 도움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쌀 10kg짜리 50부대도 보내와 목욕식사나눔 등에도 요긴하게 쓰일 예정이다.

상영재단은 소외계층 어린이와 부녀자,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해마다 여러 복지시설과 지자체 등에 기부금과 쌀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본원에는 20여 년 전부터 연간 1500만~2000만 원의 현금 기부를 해왔다.

11월 23일 본원을 찾은 노호섭 상영재단 사무국장은 “올해에는 후원금에 여유가 있어 직접 요셉의원을 방문해 필요한 것을 문의했다”고 말하고, “협의 결과 초음파 기기와약품 구입비를 지원해드리기로 하고, 원내에 식당이 있는 것을 보고 쌀도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월 22일 본원에 새로 설치된 초음파 기기는 최신 알피니언 XCUBE 60 기종으로 이전 기종에 비해 선명한 화질과 내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알피니언 측은 기존 기종을 교체하면서 할인폭을 높여 시가 4,500만원 정도인 기기를 3,200만 에 설치했다. 이



상영재단이 기증해 본원에 새로 설치된 최신 초음파 기기 알피니언 XCUBE 60 (사진 제공 알피니언).

쪽방촌 향기

6년 간 16회의 필리핀 치과 의료봉사를 되돌아보며 ...

“좀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 뿐이지요”

다시 시작된 진료소식에 환자들은 넘쳐났지만 수 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된 봉사에 오히려 힘이 났다.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환자들은 너무나 많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려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다.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로 유학가고 내가 ‘기러기 아빠’가 된 것이다.

내가 처음 치과 봉사를 시작한 건, 2017년 영등포 요셉의원에서였다. 봉사를 시작한 그해 여름, 가족들과 휴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혼자 여름휴가를 보내야 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문득 요셉의원 소식지에서 본 필리핀 요셉의원이 떠올랐다.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당시 필리핀 요셉의원 원장신부님이셨던 장경근 안드레아 신부님께 무작정 연락을 드렸다. 치과 봉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신부님

께서 흔쾌히 불러주셔서 그렇게 2017년 8월 처음 필리핀으로 치과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다.

무더운 날씨와 익숙하지 않은 진료 환경에 너무나 많은 환자로 힘들었지만 원장신부님의 배려로 첫 필리핀 봉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 그때까지는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왔다는 뿌듯함만 있었다. 다음 해 5월 다시 좋은 기회가 있어서 마닐라 외곽의 오지마을로 봉사하러



박상우

본원 치과 봉사의 · 김포 더맑은치과 대표원장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진료했다면 뽑지 않고 치료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치아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치료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환자들이었고, 부모들도 발치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당장 아이의 통증을 없애줄 수 있는 발치를 원했다.

그런 상황을 보고 다녀와서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갔다. 지난해의 경험으로 미루어 육체적 힘듦은 예상하고 갔기에 괜찮았지만, 예상 못했던 정신적인 충격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미 영등포 요셉의원에서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을 많이 보고 나름 마음이 무뎠었다고 생각했지만, 충격을 받았던 건 너무 안타까운 아이들의 구강 상태 때문이었다.

평생 써야 할 소중한 어금니에 깊은 충치가 생겨 발치하는



기기는 근골격계와 심장초음파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가 모두 가능하다. 이번 새 기기 도입에 따라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의 진료와 건강검진이 더욱 정확해질 전망이다.

본원 아웃리치팀, 혹한에 떠는 노숙인들에게 핫팩 전달

체감 온도가 최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12월 들어 가장 추웠던 12월 21일 저녁, 본원 민광한 사회사업실장 수녀가 이끄는 아웃리치 팀은 영등포 역 앞과 쪽방촌 주변을 돌며 하룻밤 몸 뉘일 곳을 찾아 헤매는 노숙인들에게 핫팩 120개를 나눔했다.



본원 아웃리치팀이 혹한의 노숙인들에게 핫팩을 나누어 주고 있다.

민 실장 수녀는 “오늘 같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 노숙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라며,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워야 하는 이들에게 손이라도 녹일 수 있도록 급하게 핫팩 나눔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

치료받던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래서 그해 9월 추석 연휴에 다시 필리핀 요셉의원을 찾았다. 이번에도 피할 수 없이 어금니 발치가 필요한 어린 환자들이 있었다. 한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여서 무섭다고 발버둥을 쳤다. 겨우 어르고 달래서 발치를 하고 보낸 다음 너무 안돼서 마음을 추스를 겸 잠시 쉬러 마당에 나갔다. 그런데 거기서 방금 발치를 한 그 아이를 다시 만났다. 그런데 세상에나, 아까 죽기 살기로 발버둥치며 울고 불고하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뛰어놀고 있는 게 아닌가.

지혈용으로 물려준 솜뭉치를 보니 그 아이가 확실히 맞았다. 이날의 그 경험은 단순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나에게는 앞으로의 봉사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못 사는 필리핀의 불쌍한 환자에게 의료봉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계속 행복하게 사는 데 좀 더 편하고 아프지 않게 작은 도움을 주러 온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세계행복보고서를 찾아보았다. 실제로 2022년도 행복한 나라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59위, 필리핀이 60위로, 행복지수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이고, 다만 아픈 치아가 있으나 치료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뿐이었다.

이렇게 깨닫고 난 후 봉사는 덜 힘들어졌고, 더 즐거워졌으며, 필리핀 사람들과 더 정이 들게 되었다. 이후에도 2019년에 세 번을 방문했고 이어서 2020년도 1월

에도 봉사를 갔다. 2020년에는, 출국할 때는 조용하다가 귀국할 때부터 문제의 코로나가 시작됐다.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 그렇게 오래 갈지 몰랐으나 수년 간 봉사 갈 기회가 완전히 막히면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다. 그래도 언젠가 사태가 끝나면 다시 방문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지와는 연락을 계속했다.

마침내 기나긴 ‘코시국’이 끝나고 2022년 10월에 다시 필리핀 요셉의원을 방문했다. 코로나 후 한국에서 오는 첫 봉사팀이라고 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된 진료소식에 환자들은 넘쳐났지만 수 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된 봉사에 오히려 힘이 났다. 코로나 시기에 누적된 환자들은 너무나 많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려 하신다는 걸 느끼게 되는 일이 하나 생겼다.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로 유학가고 내가 ‘기러기 아빠’가 된 것이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가야 일년에 세 번이 고작이었는데,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헤아려보니 지금까지 치과 의료봉사를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횟수가 16번이나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대단하다고 엄지를 치켜세우지만, 필리핀을 갈 때마다 내가 주는 도움보다 더 큰 걸 얻어 오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내 체력과 시간적 여유가 되는 한 이 봉사를 계속하려고 한다. 연휴가 생길 때마다 자꾸 짐을 싸서 필리핀에 가는 나를 이해해 주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

환자스토리



박철제 전 치과봉사의에게 틀니 치료받은 김정아 씨

“10여 년 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중순 본원 치과로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 노년 여성이 찾아왔다. ‘10여 년 전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손을 붙잡아줬던 요셉의원의 고마운 분들을 생각해’ 몇 년 전부터 연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김정아 씨(가명)였다. 이날은 특히 치과 박철제 봉사의가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해 연락처를 수소문하고자 찾아왔다고 했다.



2016년 명동성당에서 열린 요셉의원 자선음악회에 참석했을 당시의 박철제 원장.

“당시 힘들게 먹고 살다보니 이가 많이 상해서 가까운 요셉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박철제 선생님이 치아를 살펴보시더니 강남구 삼성동에 있던 자신의 병원으로 오라고 하셔서 몇 개월 동안 필요한 처치를 하시고 무료로 틀니를 만들어주셨어요.”

김 씨는 틀니를 장착한 뒤 애들을 위해 정신 없이 생활하다 얼마 전부터 다소 마음의 여유가 생겨 박 봉사의에게 고마움을 전하려고 병원에 몇 번 연락을 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요셉의원에 와서 직접 치과 팀장님을 만났더니 고맙게도 저를 기억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박 선생님을 뵙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은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동안 늘 가슴 한 구석에 박 선생님께 대한 고마움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했었거든요.”

박철제 봉사의는 1987년 본원 설립 때부터 치과 봉사로 활동하며 주말에도 선우 경식 초대원장 등과 함께 지방의 나환자촌 같은 소외된 복지시설에 무료 진료봉사를 다니곤 했다. 한 때 수도자에 뜻을 두기도 했던 그는 깊은 신심으로 헌신적인 봉사를 해왔었다. 자비를 들여 쪽방촌 공부방 어린이들의 치아를 교정해 주고, 자신의 병원에 데려다 무료로 치료를 해주었다. 지난해 8월 중순까지 본원에 봉사를 나왔던 그는 그러나 뒤늦게 뇌암이 발견돼 수술을 받고 현재는 자택에서 가료 중이다.

김 씨는 박 봉사의의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고향인 제주도의 친지에게 연락해 제주갈치 1상자를 박 봉사의 댁으로 보냈다고 했다. “진료 받으러 가면 늘 빙긋이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김 씨는 “싱싱한 제주 옥돔을 갖다 드리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봤으면 했는데, 옥돔이 잘 안 잡혀 갈치로 대신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여 년 전 기계 설치 기술자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에 빠지면서 가게가 기울자 영등포 쪽방촌으로 들어왔다. 친정의 도움으로 살림집 겸 조그마한 가게를 열어 생계를 꾸려갔다. 당시 힘들게 일한 탓인지 이가 자꾸 빠지면서 치통이 심해졌다.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본원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게 됐고, 그때 박철제 봉사의를 만났다.

“박 선생님이 직접 삼성동 본인 병원으로 오라고 하셔서 찾아가면 항상 편안하고 따뜻

하게 대해 주셔서 마음의 치유까지 받은 것 같았습니다. 또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간 수술을 받을 때도 요셉의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김 씨는 그 전에 남편이 가족들 특히 아들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괴로움을 주자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들과 함께 영등포를 떠났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원망만 더해갔기 때문. 그러다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가 시신을 염하면서 지난 잘못을 용서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부의 연을 끊고 그냥 아이들 엄마, 아빠로 지내다가 남편 시신을 보고 모든 걸 용서하기로 했더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김 씨는 3년 전 남편 기일에 아이들에게 제사를 지낼 돈으로 차라리 어려운 이들을 돕는 요셉의원과 교회에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2녀1남 모두 이에 흔쾌히 동의해 매년 12월 20일쯤이면 이곳 쪽방촌으로 와서 후원금을 전하고 있다. 김 씨는 요즘 심한 일을 못 하는 심비대증이 악화돼 고심이 크다.

“한 때는 우울증을 앓는 아들과 함께 세상을 뜨자는 자살 충동이 일 정도였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누이들에게 짐이 될 뿐더러, 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동안 고맙고 존경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밝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김 씨는 혼자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이 “좋은 세상에서 기쁘고 활발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봉사자 코너

보건교사로 일하며 간호 봉사 나오는 김은실 봉사자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일해야죠. 봉사도 함께”



김은실 봉사자가 진료받을 환자의 의무기록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아래는 미시령 정사에서 남편과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하얀 헬멧에 자전거를 타고 본원에 봉사를 나오는 김은실 봉사자(60). 아침 일찍 대치동에서 직장인 봉천동 구암고교까지 20km를 달려서 출근을 하고, 퇴근 후 10km 거리를 다시 자전거로 달려온다. 올해로 봉사 4년 째인 김 봉사자는 후배의 소개로 본원에 봉사를 나와 그만큼 자전거를 더 많이 타게 됐다며 웃었다.

“제가 간호사라서 퇴직하면 봉사할 곳이 많을 것 같아 퇴직 이후의 봉사를 생각했었는데, 요셉의원에서 일반 봉사를 하는 후배가 간호팀에서 간호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선뜻 결단을 내렸죠.”

그는 봉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바쁘게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고, 남은 인생은 나와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요셉의원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김 봉사자는 화요일 저녁 주로 정형외과 간호 업무를 많이 하는 편이다. 정형외과 환자는 허리나 다리, 무릎 등 근골격계 환자가 많아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를 붙잡아주고, 통증 억제 주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몇 가지 약제를 배합해 주사약을 만들어 의사에게 전해준다.

“간호대를 졸업하고 바로 순위고사를 봐

서 보건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실제 임상 간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머리가 좀 어설프기 때문인지 의사선생님이 ‘간호사 맞느냐’고 물어보셔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봉사 나와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그렇

게 배운 것을 학교에서 응용할 때도 있습니다.”

본원에는 단골 환자가 많은 편인데, 만성질환자가 많은 정형외과 쪽도 마찬가지다. 4년 째 같은 진료과를 주로 맡다 보니 낯익은 환자도 여럿이다.

“이곳 환자분들은 몸이 아파서 오시지만 사실 마음도 아픈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어둡고 경계하는 기색을 엿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면 무척 좋아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면 환하게 웃는 분들도 계셔서 계속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발과 다리에 심한 궤양이 생긴 60대 환자가 찾아와서 내민 상처를 보고 무척 마음이 아팠다. 이후 이 환자가 큰 병원으로 전원돼 잘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는데, 요즘에는 병원에 잘 오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 봉사자는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을 때도 많다고 전했다. 한 정형외과 봉사의는 수술이 필요한데도 돈이 없어 엄두를 못내는 환자들을 자신의 병원으로 불러 무료로 수술해 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했다.

“멀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차를 타고 오시는 의사분도 계시더군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데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봉사자는 요셉의원의 분위기가 좋은 점도 끌리는 매력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1층 안내 데스크에 계시는 분들도 모두 친절하고, 식당 주방에서는 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셔서 의료봉사자를 비롯한 많은 봉사자들이 잔잔한 기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심한 학생들 상담 늘어나

본원에 오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정신과 환자가 요셉의원이나 학교나 점차 늘어나는 것 같다는 점이다. 본원 정신의학과에는 환자 특성상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 일부 조현병 환자 등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에서는 심한 경쟁에 스



트레스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학교에 배치된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받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해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칫 마약 등에 빠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학급당 연중 17시간의 보건교육을 하는데, 감염병과 결핵 그리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동영상이나 퀴즈 등을 활용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마약에 대해 김 봉사자는 “고등학교에서 마약을 하는 사례는 드문 일이지만, 자퇴 등을 해서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체로 대학 입학 후 친구들과 클럽에서 마약을 경험하는 사례가 보고되는데, 일단 마약에 노출되면 끊기가 어려워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본원에서의 봉사가 가톨릭 신앙 갖는데 도움줘

김 봉사자는 본원에 봉사를 나온 후인 2021년 5월에 남편과 함께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본원에서의 봉사가 가톨릭에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산업은행에 다니다 현재 우송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편과는 2015년부터 자전거 동호회에도 함께 가입해 주말이면 열심히 부부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방학 때 교총 회원 네

명과 같이 일주일 정도 일본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했고, 올 2월에는 유학한 딸이 취업해 일하고 있는 독일로 2주일 가량 라이딩을 다녀왔다. 독일은 남편이 산업은행 재직시 3년 정도 주재원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한강변을 자전거로 달리는 생각을 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자전거 라이딩이 많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자전거 국토종주를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주말에 남편과 함께 한계령과 미시령, 대관령을 넘어가는 라이딩도 자주 나갑니다.”

1녀1남 중 맏이인 딸은 자전거 매니아인 어머니보다 한 술 더 떠서 오토바이를 즐긴다고. 자신과 성향이 비슷한 아들은 봉사에도 관심이 있어 여건이 되는대로 스스로에게 맞는 일을 찾아 해볼 생각이다.

월요일 저녁에는 교총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고, 화요일 저녁에는 요셉의원 봉사,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는 성당 독서 봉사를 하는 등 노년을 바쁘게 살고 있는 그는 “죽기 전까지 전공을 살려 열심히 일하면서 봉사도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김 봉사자는 간호 봉사 경험이 다친 학생들을 보살피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후원의 손길

‘착한 이웃’ 발행해 요셉의원 도운 이동진 전 대사

“선우 경식 선생은 한 마디로 성인이지요”



염수정 추기경, 선우 경식 초대원장(맨 오른쪽), 유홍중 '착한 이웃' 편집주(맨 왼쪽)와 자리를 함께한 이동진 전 대사(왼쪽에서 두 번째).

지난 2003년 4월 요셉의원을 돕기 위한 월간지 ‘착한 이웃’을 창간해 5년 가까이 본원을 후원했던 이동진 전 나이지리아 대사(78)가 2023년도에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등단 시인이기도 한 이 전 대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두 분에게 진 빚이 있는데, 모두 돌아가셔서 자선기관인 요셉의원에 기부하자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2~3년 간 매년 1000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빚을 졌다는 사람은 젊은 외교관 시절 함께 천주교 계열 잡지 ‘상아’를 발행했던 고 나상조 원로신부와 신학교 동기인 고 한정관 신부. 나 신부에게는 1000만 원, 한 신





부에게는 2000만 원의 빛이 있다고 했다.

어린 시절 성당에서 복사를 하며 사제의 꿈을 키웠던 이 전 대사는 경기중학교를 나와 신학생 예비학교인 성신고교를 거쳐 가톨릭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대학 1학년을 마치고 일반 대학으로 방향을 돌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외무고시에 합격해 일본 도쿄 총영사, 주 나이지리아 대사 등을 역임하며 40여 년 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했다. 이 전 대사는, 요셉의원 개원 초기부터 치과봉사로 참여했던 경기중 동창 고 김평일 치과원장의 소개로 1989년 무렵 선우 경식 초대원장을 알게 됐다.

“처음 만나보니 선우 선생이 참 착한 사람이어서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의사도 아닌 글쟁이니까 요셉의원을 알려서 후원자를 모을 수 있는 잡지를 만들자고 해서 ‘착한 이웃’을 만들게 됐지요.”

발행인 겸 편집인은 이 전 대사, 편집주간은 작가 유홍종 씨가 맡고, 신부화가 조광호, 작가 한수산, 시인 정호승 김형영 한광구, 김평일 치과의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전 대사는 매월 1,200만~2000만 원씩 드는 운영, 제작비 마련을 위해 천주교 각 본당을 돌며 후원회원을 모집했고, 한 달에 200~3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내 요셉의원에 전달했다고 한다. 그는 “운영난이 심해 5년에서 한 달을 못 채우고 2008년 3월호를 마지막으로 휴간을



2005년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사상을 담은 '주님과 똑같이' 출판기념회에서. 사진 맨 오른쪽은 선우 경식 초대원장, 그 왼쪽이 이동진 전 대사. 사진 아래 오른쪽부터 '예수의 작은 형제회' 고인수 신부, 감수자인 매기석 신부.

했다”며, “계산해보니 그동안 1억 원 정도는 요셉의원에 갚아준 것 같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해누리기획을 설립해 ‘착한 이웃’을 발행했던 그는 2005년에는 선우 선생의 요청으로 샤를 드 푸코 성인의 사상을 담은 ‘주님과 똑같이’를 자비로 번역 출판해(매기석 신부 감수), 요셉의원 식당에서 ‘예수의 작은 형제회’ 회원들과 출판기념회를 갖기도 했다.

“선우 선생은 한 마디로 성인”이라고 단언한 그는 “교구 차원에서 성인 선포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쪼록 그분의 숭고한 정신이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3년 10월~11월)

- 곽윤호 ●구베드로 ●권한별 ●김나연 ●김동석 ●김라원 ●김미희 ●김민주 ●김상아 ●김성권 ●김성훈 ●김수지 ●김종실 ●김지영 ●김현주 ●김희수 ●남보미 ●노은혜 ●노현주 ●마틸다 ●박경자 ●박기경 ●박민규 ●박세울 ●박수옥 ●박영구 ●박영진 ●박인희 ●박지원 ●배수연 ●백태진 ●변회진 ●사라한나 ●서근섭 ●성현진 ●손정숙 ●송선경 ●심승섭 ●안정오 ●안진규 ●양경수 ●양혁철 ●어예린 ●오원묵 ●유영선 ●유정준 ●유지연 ●윤유선 ●윤희영 ●윤희준데레사 ●이도환 ●이문호 ●이민호 ●이상용 ●이상호 ●이숙자 ●이승호 ●이영기 ●이유현 ●이윤희 ●이은경 ●이자영 ●이태직 ●이한명 ●임윤희 ●장예슬 ●장효영 ●전순이 ●정권용 ●정다은 ●정세영 ●정수영 ●정은정 ●정지혜 ●조사무엘수녀 ●조요환 ●조정민 ●조혜민 ●주상숙 ●지영주 ●차정화 ●채영순 ●최성재 ●최화실 ●최화자 ●하홍권 ●한유라 ●한윤호 ●한지혜 ●허상원 ●현예린 ●황준하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2023년 10월~11월)

- 닥터구의원 ●아이엠정형외과의원 ●지엔아이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2023년 10월~11월)

●강신걸·김선화(피스오브헤븐) : 롤케이크 1상자 ●권태인 데레사 : 쌀 300kg ●김*희(파주시) : 쌀 20kg ●김금성 : 단감 4상자 ●김유순(쪽방 주민) : 고구마 1상자 ●김정숙 : 감귤 10상자 ●김혜경 : 떡 2상자 ●대방동성당 포함 제15지구사제단 : 김치 650kg(10kg×65개) ●문준용 : 감귤 1상자 ●배관랜드 : 배추김치 1상자 ●서미자 세레나 : 빵 102봉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이승현 신부) : 추수감사 농산물(쌀, 야채, 과일 등) ●이*익 : 의류 1상자, 신발 2켤레 ●익명 : 쌀 20kg ●제주월평농장 : 감귤 2상자 ●채경숙 소피아(한라병원 간호국) : 감귤 6상자 ●토마스의집 : 김장김치 1박스 ●한몽술 : 카스테라 14개, 팔빵 50개, 떡 4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2023년 10월~11월)

●김*곤(대전) : 옷 1상자 ●김기숙 : 옷 1상자 ●김봉아 : 의류 1상자, 신발 4켤레 1상자 ●김영대 : 옷 1상자 ●박*영 : 옷 1상자 ●박찬범 : 옷 1상자 ●백*희(제천시) : 옷 1상자 ●서*력(파주시) : 옷 1상자 ●여의도성당 : 옷 1상자 ●유*혜(성북구) : 옷 1상자 ●윤*숙(세종시) : 의류 1상자 ●이*민(부산) : 옷 1상자 ●이*열(송파구) : 양말 7켤레 ●이*은(서초구) : 신발 2켤레 ●이*은(서초구) : 옷 1상자 ●이*익(송파구) : 옷 1상자 ●이지원 : 양말 10켤레, 겨울조끼 10벌 ●이형옥 : 팬티 24매 ●장* (용인시) : 옷 1상자 ●정*관(진주시) : 옷 1상자 ●조민경 : 옷 1상자 ●클래식프롬 : 옷 1상자 ●현대제철 헬스장 : 신발 4자루 ●황산연 라파엘(대방동성당 14구역장) : 의류 1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10월~11월)

●최성욱 정형외과 봉사의 : 독감 백신 50개(사전충전형 주사기) ●익명 : 독감 백신 30개(사전충전형 주사기) ●하나제약 : 넥스파 외 21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2023년 10월~11월)

●가톨릭출판사 : 달력(2024년) 50부 ●김명애 : 온수매트 1개 ●박*숙(오산시) : 마스크94 475매 ●방기숙 : 마스크94 52매 ●송*혜(양천구) : 마스크94 26매 ●신동원 : 마스크94 359매 ●양지은 : 삼푸 삼푸 15개 ●영등포 4가 우체국장 : 달력 2상자 ●이*은(서초구) : 마스크94 200매 ●이세라 : 마스크 KF94 마스크 1,079매, 덴탈 마스크 30매 ●이형옥 : 치약 30개 ●익명 : 마스크94 1059매 ●정*란(과천시) : 서적 23권 ●제이에이치씨 인터내셔널 : 마스크94 1000장 ●하*리아(서대문구) : 잡화(마스크94 등) 1상자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의 사 : 곽규완(재활의학과)
김고운(이비인후과)
김영기(이비인후과)
박수형(일반외과)
양현숙(내과)
이연주(치과)
이지혜(내과)
정희원(한의학)
조재현(산부인과)

●간호사 : 김영신 최원형

●약 사 : 박미경

●방사선사 : 이형진

●일반 봉사 : 곽윤호 송희진 임현성
정예지 최숙경

●목요급식봉사 : 공수윤 김선옥 김순덕
김영추 김원주 김은주 김인영 김종식
김현실 김현주 박금란 박문실 박양지
박연규 박영희 박윤희 손경애 신영숙
심경애 염정희 원진호 유정신 유정애
윤경애 윤상복 이래현 이명규 이미령
임지선 정은주 정인옥 조혜연 차승호
허정연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사랑의 집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10월	1,291명
2023년 11월	1,411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11월 말 현재)

744,781명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2023.10~11.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장학생 성탄 행사 성황리 마쳐



성탄 행사를 마치고 학생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맨 뒷줄 가운데가 김다솔 원장신부. 사진 오른쪽 위는 게임 장면, 아래는 학생들에게 나눠줄 선물 꾸러미.

지난 12월 10일, 필리핀 요셉의원은 성탄을 맞이해 본원 강당에서 장학생 성탄 행사를 진행했다. 51명의 장학생들은 후원자들에게 감사 카드를 작성하고, 노래와 춤을 비롯한 장기 자랑과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기쁜 시간을 보냈다. 놀거리가 부족하고 삶이 단조로운 필리핀 아이들에게 요셉의원 성탄 행사는 말그대로 간단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아이들은 여러 게임을 통해서 단합력을 다지고 평소에 발산하지 못하였던 '끼'를 마음껏 발산하기도 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본원에서 준비한 학용품과 과자 보따리를 한아름 안고 돌아갔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필리핀 요셉의원에서 현

장 실습을 한 세 명의 신학생 송별식도 함께 진행됐다.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정들었던 신학생들을 위해 장학생들은 춤과 노래를 준비해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장학생 대표 와이어스(wyeth)는 "신학생 선생님들이 나중에 필리핀 이곳에 꼭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했다.

양천성당 모금 및 후원회원 모집

필리핀 요셉의원이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국내에서 후원회원 모집을 다시 시작했다.

김다솔 원장 신부는 지난 12월 16~17일 이틀에 걸쳐 서울 양천성당에서 후원 미사와 함께 모금 및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김 원장 신부는 참석한 신자들에게 코로나 이후 필리핀 현지 상황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집짓기 사업 및 식료품 지원 등의 프로젝트 효과, 그리고 그곳 빈민촌 주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 설명했다. 양천성당 신자들은 필리핀 현지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많은 신자들



양천 성당에 비치했던 필리핀요셉의원 후원회원 모집 홍보물.



장학생 51명의 단체 사진.



양천 성당에서 미사 강론을 하는 김다솔 원장신부.

가 하면, 많지 않은 액수지만 필리핀 요셉의원의 사업에 보태쓰라고 후원하는 신자들이 줄을 이었다.

김다솔 원장 신부는 “필리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는

이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적은 용돈을 쪼개 필리핀 아이들에게 간식거리라도 챙겨주길 원하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있는

양천성당 공동체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필리핀 요셉의원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동 무료 급식 프로그램 재정비

필리핀 요셉의원은 설립 이래 2023년 중반까지 10년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해 오던 급식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지난 11월 급식소 문을 다시 열었다. 김다솔 원장 신부는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에 맞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대상 지역도 일부 새로 선정해 73명의 새로운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에서 생긴 변화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복음 묵상

“라연 누가 죄인인가?”

신뢰를 향한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의심으로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의원에 처음 왔을 때 했던 고민입니다. 새로운 임지에 간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기다릴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이었습니다. 신뢰는 두려움과 설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첫 인상이나 처음의 관계와는 다르게 실망하기도 하고 신뢰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당연히 신뢰를 배신당할 것이라는 무기력감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설렘이 앞섰습니다.

물론 요셉의원에서도 신뢰가 깨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곳 직원들의 텃세도 있었고 쓸데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원장에게 적응해야 하고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긴장감을 안고 저를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탄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믿어줄 수 없는가? 사

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 깊숙한 내면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근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통해 집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어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른 가정을 방문하기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저를 붙잡고는 자신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집을 고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거나 하자는 마음으로 그 자매님의 집을 방문했더니 빈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으면서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빨래만 잔뜩 널어두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혹여나 싶어 몇 번 지나는 길에 방문하였으나 결국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사정을 알아보니 실제로 그분은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 소유의 다른 집을 어떻게 하면 공짜로 수리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 때





어린이 급식 모습과 식후 비타민 먹이기, 어린이 환자에게 간단한 문진을 하는 에블린 선생(왼쪽부터).

에 중점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요셉의원 원내에서 급식을 함으로써 관리의 용이성을 높이고 ▲대상 아동의 가정을 전수 방문해 해당 가정 상황에 맞는 입체적인 지원 실시 ▲매 식사 후 비타민 제

문에 도움을 청했던 것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거주권 문제 이상의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든가 잘 판별해야만 했습니다. 환자들 중에도 같은 처방전으로 약을 두 번 세 번 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 짓기 프로젝트 인부는 대출금을 안 갚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향한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의심으로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물음과 연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인가? 신뢰를 깨는 상대방인가, 의심부터 하는 나인가.’ 이 질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물론 나쁜 것들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보다 하느님 나라에서의 손해를 더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의심보다는 신뢰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말이나 행동에 어떤 속내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는 사회. 오늘도 하느님 나라를 꿈꾸며 이곳 생활을 이어 갑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공 ▲아동 건강을 위해 소아과 의사가 급식 시간을 이용해 대상 아동 전원에게 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재정비된 무료급식 사업은 단순히 하루 한끼 제공에 그치지 않고, 비타민 나눔과 건강검진 실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아동의 성장과 건강을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 아래 2024년도에는 학생들에게 종합 검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급식소 방문이 힘든 아동들을 위한 셔틀을 운영해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2023년 10월 ~ 11월 신규 후원회원(13명)

- 강수인 ● 김기훈 ● 김남준 ● 박용호
- 우성희 ● 윤상표 ● 윤지영 ● 이계남 ● 이계희 ● 이예슬
- 임태남 ● 최은준 ● 익명(요셉의원 10월)

+ 2023년 10월 ~ 11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1,072명 ● 급식 재개 : 73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11월 현재)

- 진료 95,186명 ● 급식 488,466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10~11.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공부할 장소 없어도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세계 3대 극빈 지역 필리핀 나보따스에서 온 지원 요청



성탄 선물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필리핀 나보따스 빈민촌 장학생들. 오른쪽 사진은 국성회에서 지원한 성경과 성경을 들고 있는 현지 사목 수녀.



우리 나라 ‘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 소속 수녀 세 명은 지난 2007년 5월 31일 필리핀 깔로오칸 교구의 초청으로 사목 활동을 위해 이 교구의 가난한 도시 중 한 곳인 나보따스로 건너갔다. 이들은 이곳 성 로렌조 성당 내부 쓰레기장으로 쓰였던 장소에 ‘마리아의 집(Tahanan Ni Maria)’을 짓고 빈민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16년 동안 무료 급식소와 무료 유치원, 장학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나보따스는 메트로 마닐라 북쪽에 위치한, 세계 3대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빈민층 대부분은 오염된 강가나 길거리 빈민지역에서 일반인으로서의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나보따스의 빈민촌 가정은 자녀들이 많아서 보통 5~15명 정도 되는 식구가 한국의 쪽방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런 환경에서 수녀들은 먼저 공

부할 장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빈민 가정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들게 되므로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보다는 차라리 쓰레기를 주워서 생계에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집들이 상당수다. 그런 주민들에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설득해 현재 초등~대학생 총 72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대기 중인 학생이 많아 앞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장학생 수를 늘려갈 예정이다.

이곳 필리핀 가정은 가난하지만 가톨릭 국가로서 생활 속에 배인 신심이 있고, 열대국가의 많은 주민들이 그렇듯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일상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축복받은 일이지만, 성경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지닌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과 일



감사의 편지

안녕하세요, 국성회 후원자 여러분. 감사한 후원으로 필리핀 나보파스 장학생들을 위해 성경을 구입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타갈로그어 신구약 합본을,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영어 신구약합본을 원했습니다. 후원금을 빨리 보내 주셔서 이번 성탄에 커다란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남은 성경은 신입 장학생들과 청년성서모임 지원자들에게 배부해서, 계획했던 성경 필사 및 성경 공부를 활성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리핀 나보파스 학생들을 기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요셉의원과 국성회의 발전을 빌며, 그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과 그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 12. 2. 필리핀 나보파스에서 김 가브리엘라 수녀, 정 유닛 수녀, 최 요세핀 수녀 드림

☞ 2023년 10월 20일 영어성경(라벨 없음) 355권, 영어성경(라벨 있음) 14권, 타갈로그어 성경 50권을 후원하였습니다.
(총 211,569,25페소=5,000,000원)

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문제는 빈민지역인 나보파스에서는 성경을 구하기가 어려워 성서를 읽거나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수녀원에서는 장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 그룹공부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으나, 정작 성경을 갖고 있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 이번에 국성회에 성경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수녀원 측은 “성경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성경을 소지하며 읽기를 생활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 **필리핀 가톨릭에 관한 토막 상식** : ○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가톨릭 국가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330여년 받은 영향으로,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인구의 78.8%를 차지한다.(기타 종교/무교 8.9%, 이슬람교 6.4%,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필리핀의 반삼위일체 기독교 교파) 2.6%, 기타 개신교 1.9%, 필리핀 독립 가톨릭교회 1.4%)

○ 필리핀의 가톨릭 및 개신교 신자는 루손 섬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교 신자가 대다수이다.

○ 필리핀의 가톨릭은 필리핀의 전통 축제 형식과 토착신앙인 애니미즘과 결합하여 종교 예식을 열정적으로 표현한다. 해마다 1월 9일에 열리는 블랙 나자렌(Black Nazarene, 검은 예수상) 퍼레이드에서는 필리핀 각지에서 마닐라로 모여든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검은 예수상을 싣고 행진한다.

○ 필리핀의 가톨릭 신자들은 성지나 십자가, 목주 같은 종교적 유물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마닐라 퀴아포 성당의 블랙 나자렌이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어 만지지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믿는다.

용산성당 국성회 홍보미사 봉헌 홍보 부스 설치, 활동 자료 전시

국성회 담당 사제인 홍근표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2023년 11월 4일~5일(토~일) 서울 용산 성당에서 국성회 홍보 미사를 봉헌했다. 홍 사무총장 신부는 11월 4일 오후 6시 토요미사와 이튿날 새벽 6시 미사를 집전하고, 나머지 다른 미사에서는 강론을 통해 국성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홍 신부는 강론에서 “국성회는 2007년 5월 발족해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40여개 국의 가난한 지역에 성경 30여 만권을 보급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다지는데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성경을 지원할 나라는 많은데 후원회원이 적어 운영



요셉나눔재단 사무총장이자 국성회 담당 사제인 홍근표 신부가 용산 성당에서 가진 국성회 홍보미사에서 강론을 하고 있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성경 보급에 동참해 함께 말씀 전파의 사도가 되자”고 당부했다.

박찬순 국성회 회장과 임원들은 후원 미사를 전후해 용산 성당 바깥 공터에 소개 부스를 설치하고, 국성회 해외

후원활동 사진 자료와, 국성회에서 가난한 외국에 전달한 현지어 성경을 전시했다.

이날 많은 신자들은 국성회의 그간의 활동과 이색적인 외국 현지 부족어 성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후원 대열에 합류했다. 이틀간 149명의 신자들이 미사 당일 후원 신청을 했고, 현장 모금 177만6000원, 2차 현금 167만1000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용산 성당에 마련한 홍보부스에서 자리를 함께한 흥근표 신부와 국성회 임원 및 요셉의원 직원들. 사진 오른쪽은 국성회가 지원해 출간한 외국어 성경들.

국성회는 2024년 1월 20~21일(토~일)에 서울 압구정1동 성당에서 두 번째 후원미사를 가질 예정이다. +



☞ **용산성당 소개 :** ○ 용산구 산천동의 용산 정상에 위치하고, 1954년 12월에 완공되어 6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성당이다.

○ 초기 사제들과 무명 치명자 등 70여기의 유해가 안장된 교구 성직자 묘지가 있어서 전국의 성직자, 수도자들과 신자들이 찾아오는 준성지와의 같은 곳이다.

○ 2010년 이탈리아 로마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 순례지 전대사 특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성모 공경을 위해 용산성당을 순례하는 이들에게는 로마 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을 순례한 것과 동일한 전대사가 수여된다.

‘가톨릭신문’에 국성회 기사 게재



‘가톨릭신문’에서 성서 주간 특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성경을 전파하는 국성회의 활동을 소개했다(2023년 11월 26일자). 신문은 ‘사람은 빵

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는 성경 말씀의 구현을 위해 국성회에서 지난 16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42개국 가난한 지역에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 성경 외에도 은감바이어 아초리어, 마쿠아어, 루소가어, 키룬디어, 우르두어 등 해당 지역 부족어로 된 성경 31만 권과, 교리서 및 기도서 15만 권을 보급했다고 전했다.

성경 보급 대상은 돈이 없어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로서 주로 유럽의 식민지를 거치며 자국어 성경을 접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런 형편에서 자국어 성경을 얻게 된 이들 가운데 부룬디 주교단은 2014년 키룬디어 성경을, 2022년에는 파키스탄 성서위원회 임원이 우르두어 성경을 각각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봉정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국성회가 세계 곳곳 현지에서 빈민들과 함께하는 한국인 사제나 수도자,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성경과 교리서 등을 후원하고, 국내 벽지 공소와 교도소에도 성경을 지원해 왔다고 소개했다.

☞ 기사링크(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92119&acid=926)

알림

압구정1동 성당 국성회 홍보 미사 안내

일시 : 2023년 1월 20일(토) 18:30 토요미사,
1월 21일(일) 06:30, 09:00, 11:00, 18:00 주일미사
장소 : 천주교 압구정1동 성당(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67길 27)
교통 :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 국성회 지원 내역(2023년 10월~11월)

☞ ○ 10/20 필리핀 나보파스 마리아의 집(영원한 도움의 성모 수도회)에 영어성경(라벨 없음) 355권, 영어성경(라벨 있음) 14권, 타갈로그어 성경 50권 (총 211,569,25페소=5,000,000원)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3년 10월~11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덕순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신호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진우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박혜숙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종환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해순 ● 임한미 ● 전대영 ● 정영미 ● 정재숙 ● 조하영 ● 조현순 ● 최두혁 ● 최명옥
● 하금태 ● 허 근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태운 ● 진석실업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3년 10월~11월)

● 김경식 ● 김원호 ● 나종진 ● 박우준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희망자

+ 신규 후원회원 - 일반 (2023년 10월~11월)

● 강석철 ● 강영민 ● 강인화 ● 고도원 ● 고동현 ● 고현주 ● 공서연 ● 광효민 ● 구민영 ● 권상원 ● 김경동 ● 김경준 ● 김광자
● 김명희(레지나) ● 김미현 ● 김민지 ● 김상숙 ● 김선옥 ● 김수현 ● 김승주 ● 김영옥 ● 김영한 ● 김우영 ● 김은숙 ● 김은실 ● 김은주
● 김유숙 ● 김정화 ● 김준현 ● 김형균 ● 김형숙 ● 김훈동 ● 김희수 ● 남기균 ● 남기만 ● 노미미 ● 노자영 ● 류연자 ● 류지영 ● 류혜선
● 문순자 ● 박경생 ● 박선옥 ● 박수진 ● 박영훈 ● 박옥규 ● 박재옥 ● 박재우 ● 박찬규 ● 박춘옥 ● 박혜숙 ● 박효선 ● 박효종 ● 배광익
● 서성자 ● 서향아 ● 서희표 ● 설진옥 ● 심지훈 ● 안상규 ● 안인모 ● 양창호 ● 양훈석 ● 엄옥진 ● 엄현정 ● 염지유 ● 오소연 ● 오승웅
● 유승영 ● 윤종임 ● 이동균 ● 이동희 ● 이미숙 ● 이미용 ● 이병옥 ● 이수경 ● 이승국 ● 이영아 ● 이영자 ● 이용우 ● 이원석 ● 이일호
● 이종득 ● 이현자 ● 임순자 ● 임순태 ● 장수진 ● 정명화 ● 정미화 ● 정수자 ● 정혜숙 ● 조금자 ● 조덕순 ● 조미자 ● 조성미 ● 조성민
● 조소현 ● 조재현 ● 지태근 ● 진선희 ● 채수석 ● 천상현 ● 최신철 ● 최영희 ● 최예은 ● 최예진 ● 최윤수 ● 하상옥 ● 한미숙 ● 한숙희
● 허봉희 ● 허순덕 ● 허은화 ● 허혜선 ● 호미경 ● 황영희 ● 황현주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 (2023년 10월~11월)

● 용산성당(현장모금과 2차헌금)
조사무엘수녀

■ 2023년 10월~11월 후원금 내역 : 16,861,000 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2024년 2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2월 13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 토비트 4, 7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6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2-2637-7258)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 (02-2637-7258)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국민은행	364301-04-236621	요셉나눔재단법인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매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3~5시

장소 1층 로비



식사 나눔 (목요일)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장소 1층 식당



옷 나눔

시간 요청에 따라 수시로

장소 1층 현관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영화포럼

시간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